

露西亞의 哲學과 「톨스토이」의 理性愛[下]

申南澈

이와 같은 唯物的 實證的 哲學은 그러나 『페터·스틀베』(一八七〇-?)를 先頭로 한 『맑스主義的 思想』 傾向의 所有者들에 依하여 漸次로 後退하기 始作하였으나 그러나 야 여러 가지의 哲學的 思想이 混然히 그 當時의 社會的 形便에 應하여 存在하고 있었다. 이에 露西亞哲學에 있어서의 第三期가 오게 되었다. 이때에는 『솔로비에프』(一八五三-一九〇〇)같은 宗教的 神秘主義者, 『로파틴』(一八五五-?)같은 徹底한 唯心論者, 『트루베츠코이』(一一九〇五) 『코슬로브』(一八一三-一九〇一)같은 新칸트學者가 있고 끝으로 우리의 偉大한 톨스토이 翁의 思想도 이때에 있어서 한 큰 목을 보는 것이었다.

톨스토이의 思想은 그 뒤에 이르러 그에게 있어서의 『死灰된 것』으로서 批判을 當하였지만 그러나 當時 如何히 큰 影響을 주었는가에 對하여도 내가 이곳에 呶呶 할 必要를 느끼지 안홀만치 絶大한 것이었다. 그는 自己의 哲學思想에 對하여 體系있는 著述을 가지지 안코있다. 그러나 그의 人生論(一八八七) 『宗教는 무엇이냐』(一九〇二)及 『파스칼』(一九〇六) 등의 晩年の 思索이 보이는 深遠한 人生에 對한 洞察은 實로 유닉한 哲學을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쇼팽하우어』·『룻소』·『니체』及 『파스칼』을 愛讀한 그는 原始 基督教에 돌아가자고 하였고 그 教義를 當時의 教會 及 國家에 對立시키었었다. 眞正한 基督教은 內的인 全生活을 充滿하는 神의 信仰에 依하여만 可能하다 하였고 吾人의 마음에 살고 있는 神에 對한 信仰에 依하여 神 及 隣人에게 奉仕하므로써 『神의 王國』은 成立한다 하였다. 그의 晩年이 實 宗教的으로 潤色된 것은 事實이나 그러나 그가 名譽, 功利의 慾望으로부터 떠나 『靈의 힘』에 依하여 살라고 한 것은 卽 理性에 依하여 眞理에 到達하라고 한 것이었다. 그는 理性的 生活에 依하여 生命을 獲得하라 하였다. 『動物的 感覺과 理性的 感覺과의 새롭은 關係에 依하여』(人生論) 人間의 新生活은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人間 生活에 있어서의 合理的 意識이 理性的 法則에 依하여만 到達할 수 있는 幸福이야 말로 眞正한 幸福이었고 그 幸福에

對한 憧憬에 依하여서만 『사랑』은 잇을 수가 잇다 하였다. 이 『사랑』은 卽 『
理性愛』이고 이 『理性愛』에 依하여 人生은 비로소 빛나는 것이었다.

톨스토이는 偉大한 藝術的 思想家이었다. 그리하여 帝政露西亞의 哲學의
第 三期를 빛나게 하는 影響的인 巨人이었다.

(이 一文은 C,Guettler著 近世 外國 哲學史 概說-(一九二二年라이프치히)
에 依하여 草한 것이다.)